

월간

디자이너의

Vol.511 / 2021.1

mdesign.designhouse.co.kr

Monthly

DESIGN

2021 월간 <디자이너>이 주목한 디자이너 14팀
14 Remarkable Designers



9 788970 413716

03050

News

발행 유다에 기자

Lifestyle

일상과 명상

지난 12월 4일 애플과 구글이 '2020년 최고의 앱'을 발표했다. 학습, 운동, 일정 관리, 게임, 명상 등 다양한 분야의 앱이 리스트를 차지한 가운데 화상회의 앱 'Zoom',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UN의 세계 음식 프로그램이 만든 음식 기부 앱 '제어다말'이 애플과 구글에서 모두 언급되었다.

그중 명상, 호흡법, 수면 도움 등 정신과 마음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앱의 약진이 특히 인상적이다. 명상은 이제 마치 게임처럼 일상적인 취미로 정착한 듯하다. 흔한스러운 시기인 만큼 '2020년 최고의 앱'으로 언급된 마음을 돌보는 세 가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loóna

로나Loóna

스토리텔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도록 수면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동화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이 특징이다.

shine

샤인Shine

명상에 도움을 주는 800개 이상의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자산이다. 감정을 통해 필요한 테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calmaria

칼마리아Calmaria

포르투갈어로 평온을 의미하는 칼마리아. 집중, 여유, 안정 등 80여 가지 테마에 따른 호흡법을 세련된 UX/UI로 유도한다.

디자인 상하이가 남긴 것



밥티스트 보위의 '일크로드 호텔'



마리오 차이 스튜디오의 '물로세움'

디자인 상하이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었다.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됐던 이번 행사는 상하이 월드 엑스포관과 컨벤션 센터로 장소를 옮긴 후야마 개최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디자인으로, 디자이너 간의 협력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 디자인 상하이 디렉터 주오한의 말대로 올해는 10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코로나19 디자인'만을 선보였다. 전시 전반에서는 과거와 현재, 노력함과 기발함을 신성한 풍경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고루 엮였다. 중국 컨템퍼러리 디자인의 흐름을 다진 디자이너 최원호가 전시장 본관 입구에 작품을 전시했으며 반대편에는 프랑스 인테리어 디자이너 밥티스트 보위가 여러 시대와 나라의 스타일을 혼합해 완성한 '일크로드 호텔'을 선보였다. 마리오 차이 스튜디오Mario Tsai Studio는 로마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거대한 설치 조형물을 전시했는데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외에도 헬프 50개를 하나의 거대한 상동리어로 조합한 무오이 워크스Moore Works, 어두운 공간 안에 만화경처럼 보이는 조형물 전시한 리 브룸Lee Broom, '하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유리 캐비닛 안에 다양한 오브제를 소개한 톰 디슨Tom Dixon이 화제를 모았다. designshanghai.com 글 계연나 통신원 사진 제공 디자인 상하이

미국 휴스턴 미술관이 선택한 최병훈의 '선비의 길'

한국을 대표하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 최병훈의 신작 '선비의 길 Scholar's Way'이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 영구 설치되었다. 가로 0.7m, 높이 3m의 이 작품은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형성된 3개의 인도네시아산 현무암의 거친 원시성과 매끄러운 현대성을 대비시킨 조각으로, 옛 선비들이 정원과 서재에 두고 감상하던 수채에서 영감을 얻었다. 휴스턴 미술관은 신관 '낸시 앤드 리치 카인더 빌딩The Nancy and Rich Kinder Building' 개관을 앞두고 올라푸르 엘리야손, 마이클미웨이 등 세계적인 작가들에게 작품을 의뢰했다. 최병훈은 2018년 뉴욕 소재 프리드먼 현대 갤러리 전시를 계기로 작품 제작을 의뢰받았고, 2017년 개리 힌터로Gary Hinterow 휴스턴 미술관장과 직접 만났다. 작품 설치 현장을 둘러본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약 2년 반 동안 작업에 매진했다. 그렇게 완성된 '선비의 길'은 건물 서쪽 수변 공간에서 지난 11월 그 모습을 드러냈다. choibyunghoon.com

